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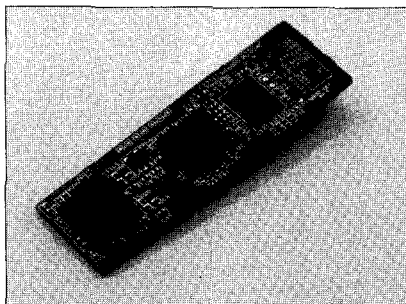
2011.11
November
| 광 | 학 | 단 | 신 |

회원사 동정

이달의 신규회원사 -정회원(1개 사) (주)모노클

- 대표 : 이강수
- 전화 : (043)536-5368
- 팩스 : (043)536-5367
- 주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천리 5-6
- 홈페이지 : www.monocle.co.kr
- 주요 품목 : stage, optics

삼성전기(주) '센싱 카메라 모듈' 개발



▶삼성전기가 개발한 센싱 카메라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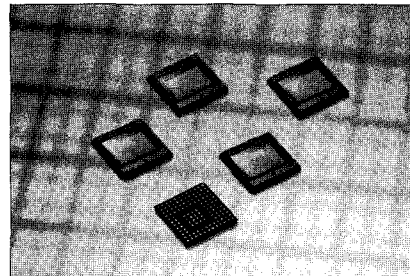
삼성전기(대표 박종우)가 기존 카메라모듈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한 '센싱 카메라모듈'을 개발해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센싱 카메라모듈은 화상통화, 폐쇄회로TV(CCTV) 등의 기본적인 카메라 역할은 물론 얼굴·거리·움직임 인식 및 화면조정 등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TV에 센싱 카메라모듈을 적용할 경우 △TV 선호 채널 탐색 △근거리 시청 경고 △TV 전원 자동 조정 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TV뿐만 아니라 △풍향·풍속·전원이 자동 조절되는 에어컨 △공간 및 장애물 인식이 가능한 로봇 청소기

등을 만드는 데도 센싱 카메라모듈을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주) 디지털 카메라용 이미지센서 시장 본격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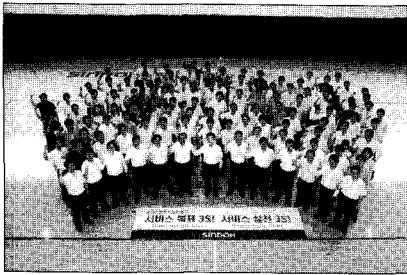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1600만 화소 CMOS 이미지센서

삼성전자(대표 최지성)가 고해상도·고감도의 1600만 화소 CMOS 이미지센서 출시를 통해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1600만 화소 CMOS 이미지센서는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에 최적화된 1/2.3인치 크기의 센서다. MIPI(Mobile Industry Processor Interface)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적합한 제품이다.

특히 최대 1600만 화소의 정지 화상을 1초당 30 프레임으로 셔터지연(shutter lag) 현상 없이 촬영 가능하도록 설계 됐다. 최대 830만 화소의 고해상도 16:9 동영상은 1초당 60 프레임의 속도로 촬영가능하다. 또 후면 조사형(Backside Illumination) 1.34μm 픽셀 센서를 채용해 뛰어난 감도와 저잡음 특성을 갖고 있어 어두운 실내와 야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주)신도리코
CS부문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 응시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자사 고객



▶신도리코 CS부문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비스(CS)부문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 전문역량 강화 및 품질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에 응시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 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 부서 등에서 종사하는 고객 서비스 전문가로,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와 기업의 고객관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불만이나 피해 상담을 담당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신도리코의 CS부문 직원들은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올 하반기 필기와 실기 시험을 응시할 예정이다. 신도리코는 시험 응시자를 위해 자율적인 개인 주도형 학습 방법과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통한 강의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 업무와 교육의 효율적인 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성용 신도리코 이사는 "고객의 업무와 직결되는 기업용 프린터, 복합기 시장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필수 경쟁력"이라며 "업계 최대 규모의 전국 2천명의 서비스 인력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계속하며 더 높은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엔유프리시전(주)

현미경 측정 영상 획득법 특허 취득
에스엔유프리시전(대표 박희재)은 지난 9월 공조침 현미경구조를 이용

한 영상획득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산업용 제조장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크루셜텍(주)

참테크 인수, 휴대폰 케이스 사업 진출
휴대폰 입력장치 옵티컬트랙패드(OTP)업체인 크루셜텍(대표 안건준)이 참테크글로벌을 인수, 휴대폰 케이스 사업에 진출한다. 크루셜텍은 재무적 투자자(FI)들과 함께 참테크글로벌(대표 이기홍) 지분 57.4%를 75억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크루셜텍이 자체 인수하는 지분은 43억원 상당의 지분 34%며, 나머지 23%는 안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옵티컬솔루션이 공동 인수하는 방식이다.

참테크는 2000년 설립된 휴대폰 케이스 기업으로 삼성전자에 제품을 공급한다. 2009년 매출 1041억원, 영업이익 113억원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567억원, 영업손실 4억원을 기록했다. 크루셜텍 측은 참테크 국내 및 중국 공장 인력 100%를 고용 승계하고 현재 회사명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준 크루셜텍 사장은 "참테크 기술력과 크루셜텍 시스템 역량을 융합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한국·중국·베트남 3각 축을 활용, 글로벌 휴대폰 부품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셜텍(주)

OTP 원천기술 특허 취득

크루셜텍(대표 안건준)은 지난 9월 '광학 박막코팅을 구비한 초슬림 광포인팅 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OTP 동작 성능 개선에 필요한 필수적인 구조에 대한 특허로

크루셜텍이 보유하고 있는 OTP 원천기술 영역을 더욱 탄탄히 해줄 전망이다. OTP 기능적인 면에서도 오동작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향후 OTP 영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후지제록스(주)

복사기 부문 고객만족도 11년 연속 1위



▶한국후지제록스는 2001년 복사기 부문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 11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1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복사기 부문 11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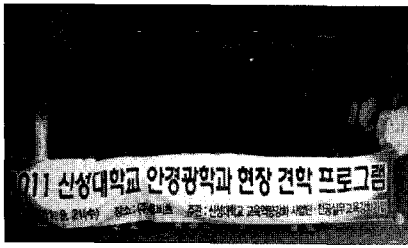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는 2001년 복사기 부문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품,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 만족을 조사하는 항목 중 '영업 및 서비스 직원의 응대 태도'에서 전년대비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상의 파트너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휴비츠

신성대 안경광학과 현장 교육

휴비츠(대표 김현수)는 지난 9월 21



▶신성대학교 학생들이 휴비츠 방문기념촬영을 했다.

일 신성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류동규) 학생 40여명의 방문을 받고 실습 시 편리하게 사용하던 자동검안기의 광학적 원리에 대한 강의와 제품교육, 슬릿램프 생산공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방문은 제품교육과 함께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며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호응과 흥미를 자아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신성대학교 안경광학과 류동규 학과장은 “이번 현장 견학이 미래의 안경사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방문에 협조해준 휴비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휴비츠의 한 관계자는 “더욱 의미 있는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언제나 안경광학과의 방문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코렌

50억원 규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광학렌즈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코렌(대표 이종진)이 5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만기일은 2016년 10월 24일이며, 표면이자율은 2%, 만기보장 수익률은 연 3.5%다. 신주인수권 행사금액은 2,255원이다.

코렌은 확보된 자금을 통해 800만 화소 및 1,300만 화소 카메라렌즈 신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코렌

소형 렌즈 광학계 관련 특허 취득

코렌은 소형화, 경량화된 렌즈 광학계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지난 9월 공시했다.

이를 통해 코렌은 4군 4장의 렌즈를 이용해 제조 단가를 낮추고 소형 및 경량화된 광학계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광학계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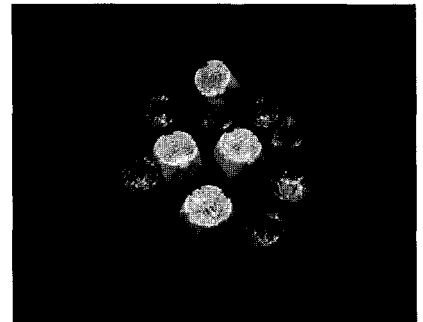
니콘, 카메라 렌즈 누적 6500만개 생산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징코리아는 니콘의 렌즈교환식(SLR) 카메라용 ‘니코르(NIKKOR)’ 렌즈의 누적 생산량이 65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니콘은 지난 3월 렌즈 6000만개의 누적 생산에 이어 7개월만에 500만개를 추가 생산했다.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렌즈 수요가 꽤 높은 수준인 것. 니콘은 지난 2007년 7월 4000만개, 2009년 9월 5000만개의 누적 렌즈 생산량을 기록했었다.

니코르 렌즈는 어안, 초광각, 초망원, 줌, 마이크로까지 다양한 렌즈 제품군을 보유한 니콘의 대표 렌즈 브랜드로 아마추어 사진가 및 사진 전문가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임기술, LED조명용 광학렌즈 개발



▶보임기술에서 개발한 LED 조명용 광학렌즈

보임기술(대표 황춘근)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용 광학렌즈<사진>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제품은 가로 60°, 세로 30°의 배광각을 지원하며 크기가 작아 좁은 면적에도 직접 배열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빛을 분포하는 배광각이 넓어 가로등, 보안등, 경관등과 같은 실외등 제작에 적합하다. 회사 관계자는 “크리나 서울반도체의 초소형 LED 패키지에 최적화 됐다”고 덧붙였다.

보임기술은 2000년 4월 설립된 벤처기업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학기기 내부 오염입자 정밀 측정·제어 기술개발 광학기기 등 진공장비의 내부 오염입자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공기술센터 강상우 박사팀은 진공장비의 오염입자 측정·제어 및 원도 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강 박사팀이 개발한 장치는 오염입자에 대한 측정부터 제어, 제어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가능하며 외산 장비 가격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췄다. 기존 외산 장비는 오염입자에 대한 측정만이 가능해 기능적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제품 가격도 높아 활용도가 낮았다.

강 박사팀은 진공상태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장비 내부에 퍼져 있는 입자의 위치를 제어함으로써 측정효율을 높였으며 선택적으로 입자의 움직임을 제어해 특정 위치에 있는 입자크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광학기 내부 윈도우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지 못했는데, 윈도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해 기존 진공장치에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연구팀은 진공장치의 윈도우에 개발한 오염방지 모듈을 장착해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고 부착된 오염물질 역시 쉽게 제거돼 레이저 투과율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관련 기술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 등 광학센서를 사용하는 산업체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광학신상품

(주)신도리코

컬러 디지털 인쇄기 'PRESS' 시리즈 3종 출시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고품질 컬러 출력, 강한 내구성, 높은 생산성을 특징점으로 갖는 신형 컬러 디지털 인쇄기 '프레스(PRESS)' 시리즈 3종(C6000 · C7000 · C800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프레스' 시리즈(C6000 · C7000 · C8000)는 각각 A4용지 기준으로 분당 60 · 71 · 80매의 초고속 출력을

지원해 출력량이 많은 인쇄소 업무에 최적화됐다.

프레임 본체는 2중 구조로 설계돼 내구성을 높이고 용지의 진동과 비틀림 현상을 줄였다. 염서부터 A3 와이드 크기, 64g/m²부터 300g/m²까지의 폭넓은 용지 대응력과 최대 1만760매의 대용량 급지도 특징이다. 고해상도 시미트리(Simitri) HD 토너로 선명도를 높였으며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컬러 판독 시스템을 장착해 인쇄 품질을 안정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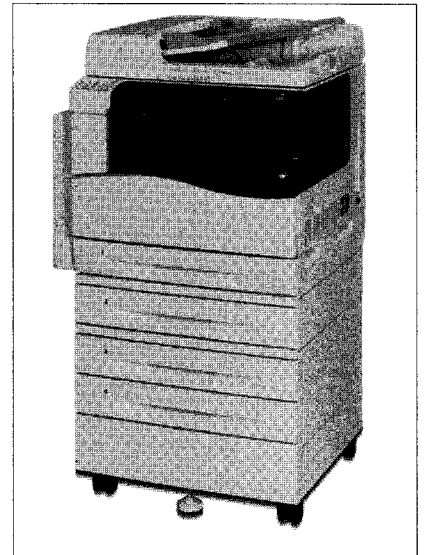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ORUM(Operator Replaceable Unit Management)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오작동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김성용 신도리코 이사는 "신제품 출시로 인해 신도리코는 한층 더 강화된 인쇄기 라인업을 통해 디지털 인쇄 사업을 겸하는 주문형 출판 서비스(POD, Publish On Demand) 출력속도부터 대규모 상업 인쇄소까지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중소 및 소호기업을 위한 흑백 복합기 2종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중소 및 소호(SOHO) 기업을 위한 A3 흑백 복합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흑백 복합기 도큐센터(DocuCentre) 2058/2056는 복사,



▶한국후지제록스에서 선보인 흑백 복합기 '도큐센터 2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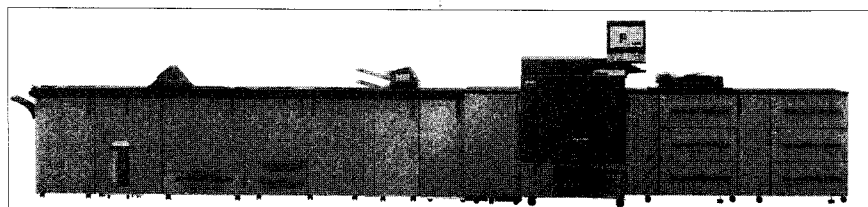
출력, 스캔 기능을 기본으로, 기업의 규모 및 업무 특성에 따라 복사 및 출력 속도, 자동 원고 이송장치 탑재, 용지 트레이 구성 등 세부 옵션을 맞춤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캔 기능을 탑재해 스캔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PC에 저장하거나, 원하는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다. 이 복합기의 최대 출력 속도는 분당 23매이며, 스캔 속도는 분당 22매이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이번 출시된 복합기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중소 및 소호 기업에 매력적인 제품"이라며,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고객의 업무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사양을 맞춤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 갖춘 흑백 복합기 5종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신개념 기술을 탑재해 에너지 절약과 소음 감소에 효과적인 흑백 복합기 5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도리코의 디지털 인쇄기 'PRESS C7000'와 'PRESS C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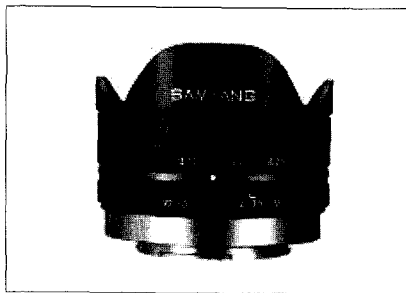
▶에너지 절약과 소음감소에 효과적인 한국후지제록스의 흑백 복합기

신제품인 흑백 복합기는 아페오스포트(ApeosPort)-IV 시리즈 3종(5070, 4070, 3070)과 도큐센터(Docu-Centre)-IV 2종(5070, 4070)이다. 이 제품들은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Smart Energy Management Technology)'을 도입해 사용하는 기능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절전 모드를 해제하더라도 복합기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전력이 공급돼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신제품은 복수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태스킹'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력속도는 분당 최대 55매이며, 흑백과 컬러 문서 모두 분당 70매의 빠른 속도로 스캔이 가능하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이번 신제품은 에너지 절약과 조용한 사무 환경 조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낭비되는 에너지는 막고 소음으로 인한 업무 방해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삼양옵틱스

국내 1호 미러리스 카메라용 교환 렌즈 개발

광학렌즈 전문기업 삼양옵틱스(대표 김성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용 교환렌즈 개발에 성공



▶삼양옵틱스가 개발한 미러리스 카메라용 7.5mm F3.5 어안렌즈

해 첫 제품인 7.5mm F3.5 어안렌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올림푸스와 파나소닉 마이크로포서드 카메라와 호환이 가능하다. 삼양옵틱스는 올해 중 삼성 및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용 교환렌즈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삼양옵틱스는 1972년 순수 국내 자본으로 마산수출공단에 설립된 광학렌즈 전문기업이다. 1980년대 말에는 SLR 필름 카메라용 교환렌즈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선 적도 있을 정도로 해외 교환렌즈 시장에서 잘 알려진 국산 브랜드다. 500mm 이상급 망원렌즈 5종을 포함해 8mm, 14mm, 85mm 등 총 9종의 교환식 렌즈를 생산하고 있다.

2007년 반기 7억원에 불과했던 삼양옵틱스 교환렌즈 매출은 2011년 반기 89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교환렌즈 매출은 23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옵틱스 관계자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 1대에는 표준·광각·망원 3종류의 렌즈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인 촬영기술을 습득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사진촬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환식 렌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학이벤트

한독 광학기술 심포지엄 개최

11월 8일~11일, 밀레니엄힐튼호텔 독일 튀링엔주가 주최하고 한독상공회의소가 주관하며 한국광학기기협회가 후원하는 '한독 광학기술 심포지엄'이 11월 9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독일 튀링엔 주의 Matthias Maching 경제장관과 경제사절단 일행 15명이 내한 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내한중 11월 9일 Optoelectronic을 주제로 한독 광학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방한한 독일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한독상공회의소 02-3780-4620(우제호 부소장)

한일 워크숍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개최

11월 9일~12일, 서울대학교 반도체연구소 설계관

한국광학회가 후원하는 The First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대학교 반도체연구소 설계관에서 개최된다.

이병호 준비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광학회 광정보처리 분과와 일본 광학회 해당분과들간의 과거 수년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치러지는 연례 워크숍"이라며 "올해 워크숍에는 일본측에서 20명 정도의 학자가 참여할 예정으로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린데 이어 내년에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본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

〈한독 광학 기술 심포지엄- Optoelectronics 일정〉

시간	발표자	주제
09:45 - 10:00	등록 및 입장	
10:00 - 10:05	Mr. Andreas Krey 튀링엔주개발공사 이사회장	환영사
10:05 - 10:20	Dr. Klaus Schindler OptoNet 대표	"Optical Technologies in Thuringia" 독일 튀링엔주의 첨단 광학기술
10:20 - 10:40	공홍진 교수 KAIST	"Korea Future Laser Technology" 한국의 미래 레이저 기술
10:40 - 11:00	Mr. Daniel Boehme JENOPTIK Korea 대표	"JENOPTIK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Korea" JENOPTIK사와 한국의 기술협력
11:00 - 11:20	이동훈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ptical Metrology for LED & Solar cell" LED 및 태양전지 광측정 기술
11:20 - 11:40	Prof. Dr. Andreas Tuennermann 예나 Fraunhofer 응용광학 및 정밀공학 연구소 이사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Basis of Innovations in Optical Technologies" 혁신적 광학기술의 발판: 산학(연)협동 연구
11:40 - 12:00	김호전기 이종찬 팀장	"LED Lighting Technology" LED 조명 기술
12:00 - 12:20	Dr. Walter Schott SIOS Messtechnik GmbH사 대표	"Nanometrology - Research Work between SIOS and TU Ilmenau" 나노계측기술 - SIOS사와 Ilmenau 공대의 연구
12:20 - 12:30	Q&A	
12:30 - 13:30	오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페이지(<http://dhip.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0회 광자기술 학술회의 (PC2011) 개최

11월 30일~12월 2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제20회 광자기술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11)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된다.

전영민 조직위원장은 "최신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광자기술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기술분야와의 융합에 의해 그 응용분야는 끊임없이 넓어지고 있다"며 "이제 20들을 맞이하는 광자기술학술회의(PC2011)를 통해 그동안의 우리의 발

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광통신 및 광네트워크 ▶광소자 ▶LED/Solar cell/Display▶광섬유/재료 ▶광신호처리 ▶바이오포토닉스 ▶광정밀 측정 ▶기타 광자기술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최신 연구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주 저자가 학생이고 접수시에 평가대상으로 신청된 논문중에서 채택하여 우수 학생 논문 시상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학회 기간 중에 업체 recruit 면담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본 학술회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photocon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학인포메이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 종합포털' 오픈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보호 종합지원포털(www.is-portal.net)' 구축을 마치고 산업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온라인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산업기술보호 종합지원포털 구축을 통해 국내외 판례, 학술논문 등을 포함한 보안 관련 최신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보안교육 및 위험성 평가 등으로 기술유출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역할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포털은 올해부터 총 3차연도에 걸쳐 산업기술 보유기관 수요에 맞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점진적으로 개발한다.

1차연도는 기본적인 포털 운영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요기관 요구사항인 보안 관련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우수사례, 기술유출 상담, 주제별 온라인 보안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산업기술 보유기관 자산위험성 평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의 산업기술에 대한 DB서비스, 보안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는 기관 자산 가치평가와 업무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분석을 토대로 위험수준 측정 후 보호대책을 제시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다.

내년부터 추진할 2단계 고도화 사업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분을 확장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 편의에 맞게 확대 개편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